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7, 응용,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학적인 분석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다음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22절입니다. 나는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는 다른 이유로 이미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 분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약의 구약 사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길게 다루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에베소서 2장 11-22장을 읽으면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전에는 서로 상충되었던 두 개체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화해하고 평화로운 관계와 존재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사원이 등장한다는 주제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이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개체를 화해시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로 기능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장소.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서 자체에 있는 이 주제는 이 책의 시작 부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14절의 긴 부분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한 머리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뜻을 알게 하신 것인데,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현재 창조에서 어떤 유형의 전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따르면 죄로 인해 발생한 현재 하늘과 땅의 문제를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세상을 분열시키고, 적개심을 일으켰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개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1-22장은 이전에 적대적이었고 어긋나고 분열된 인류의 두 부분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화해를 이루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서의 본문에 대한 지속적인 암시를 통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사야의 회복 계획의 성취로 보고자 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자나 가까운 자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것이며 그들도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에 대한 이사야의 기대가 이제 회복되었거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특히 바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목하는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에서 성전의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인 국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가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사야 54장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느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에베소서 2장은 더 넓은 성경신학적 내러티브 안에 들어갑니다. 화해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 성전 이미지를 강조하는 에베소서 2장은 이 모든 것이 타락으로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더 폭넓고 포괄적인 신학적 서술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분의 뜻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전체에서 성전이라는 측면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와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방식을 회복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책에 나오는 예언적 기대는 하나님께서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분의 의도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여 새 창조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이야기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위와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를 일으킨 창세기 3장의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처리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류를

세우셨고, 이제 인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은 이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으로 다른 대부분의 일이 일어나는 곳인 요한계시록, 특히 21장과 22장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여기서서는 하나님의 건축물과 요한계시록 21장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합니다. 22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고 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요 기초는 어린 양의 사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이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열방이 와서 그 도시로 흘러드는 곳, 그리고 핵심 특징은 이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즉 그의 백성의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미 에베소서 2장과 11절부터 22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절정이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그의 백성과 함께 새 창조 곧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궁극적인 절정입니다. 절.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더 쉬운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예를 간단하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본문에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며 모든 본문이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 본문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주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내려온 일관되고

정경적인 통일체인 정경의 일부로서 전반적인 성경 신학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힐데브란트 교수의 웹사이트에서 제가 성경의 줄거리에 관한 일련의 강의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정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학이나 구약과 신약 신학, 특히 성경 전체의 통일된 이야기에 관한 매우 유용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텍스트 중 하나는 Desmond Alexander가 쓴 *From the Garden to the New Jerusalem*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일을 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까지 주제를 추적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적용, 또는 일부 학자들이 부르는 대로 상황화와 관련된 문제를 간략하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본문 자체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순종으로 응답할 때까지 해석 과정은 불완전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본문이 우리 시대와 상황에 맞게 맥락화되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해석의 과정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성경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대의 상황과 상황에 적용하거나 상황화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영감받은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 자체의 신학적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용은 해석 과정이 끝날 때 추가되는 단순한 추가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해석을 하고 텍스트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작업은 해석 프로세스가 끝날 때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여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문화와 시대에 맞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해석 과정의 맨 처음에 적용, 즉 상황화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본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용이 바로 해석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성경에 일치시키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묻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성경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생산된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어떻게 간격을 메울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

적어도 적용에 대한 성경적 정당성에 대한 정당성 중 하나는 신약성서 자체에서 발견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영감과 관련하여 고려한 본문이지만 단순히 성경조차도 그 자체의 지속적인 관련성과 적용을 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다른 여러 본문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본문 중 하나가 디모데후서 3:16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는 영감을 언급하는 가장 명확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성경의 영감받은 성격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16장의 나머지 부분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남자나 여자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영감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입니다.

영감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해석의 과정은 우리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물론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할 때까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해석 과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용이 해석을 잘하기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목사였을 때 어떻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웠는지, 주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학생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주로 주석이나 해석이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부분을 찾은 경우가 많았고, 쉬웠다는 뜻도 아니고, 아주 씨름하고 작업해야 할 어려운 본문이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매우 열심히 했지만, 통역과 설교 준비 중에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 중에서, 나는 잘 적용하는 것이 통역의 가장 어려운 측면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의 독자와 청취자를 위한 성경의 해석, 적용 또는 상황화는 무엇보다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본문의 건전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자가 의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독자가 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 중 하나의 모델은 실제로 해설 시리즈, 특히 하나의 해설 시리즈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Zondervan이 제작한 NIV 응용 해설 시리즈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공에 특정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성경 본문을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많은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리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피해야 할 몇 가지 오류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 중 일부는 다소 명백하고 거의 어리석으며 일부는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림을 적용할 때 피해야 할 첫 번째 실수 또는 첫 번째 오류는 전반적인 문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신약이나 구약 문서를 문학적, 역사적 맥락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잘못 적용하는 것의 위험 또는 이유 중 하나, 죄송합니다. 성경 본문을 잘못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종 성경 구절의 문학적 또는 역사적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절과 장 구분, 특히 성경의 절 구분에 대한 저주 중 하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것을 마치기 전에 제쳐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 구분은 장 구분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절 구분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사람이 본문에서 같은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그룹에게 장과 절 구분 없이 창세기 중간 어딘가에서 동일한 위치를 찾으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장과 절 구분은 우리가 올바른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위치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과 절 구분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절을 고립된 방식으로 취급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자기 포함된 단위,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으로 취급하는 것,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구절이나 문단이 그것이 발생하는 문맥과 분리되어 자체 포함된 단위로 취급되는 경우, 역사적으로든 문학적으로든. 우리는 맥락을 무시하고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예 중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구절을 따로 취한다면,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이 구절과의 관계에서 문학적 맥락을 논의할 때 전에 말했듯이,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려운 결혼 생활 속에서도 끈질기게 인내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려운 친척을 용납하실 것입니다. 내가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종종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 구절을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것의 어려움은 더 넓은 맥락, 즉 바로 앞의 구절인 11절과 12절로 되돌아가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풍족한지, 아니면 절실히 궁핍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있든 없든, 풍족하든 가난하든 적절하게 반응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텍스트가 적용되는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 어리석은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잘못 적용한 어리석은 예이지만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심각한 인생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 막 덴버로 이사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사역에 감사했고, 그가 거짓된 핑계로 그곳에 있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가 거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요일에 그는 거기에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 학개서 1장에 나오는 흥미로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콜로라도로 데려가서 목회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읽었습니다. 학개 1장 3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집은 폐허로 남아 있는데, 이제 너희는 판넬로 만든 집에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느냐? 그리고 목사님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신이 패널이 있는 방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 앨라배마 주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앨라배마에 있는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 판넬이 있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읽다가 8절에 이르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콜로라도로 가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콜로라도, 산으로 가득한 주, 로키산맥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학개에서 콜로라도로 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저는 그가 몇 년 전 콜로라도에 있는 이 교회의 목사로 이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학개 1장을 그 맥락에서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전체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판넬집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들의 집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장 8절에 나오는 산으로 가라는 부르심은 움직이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재목을 베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군가가 판넬집을 떠나 산으로 가서 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엉망이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모든 적용, 유효하려면 모든 적용은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맥락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적용은 해당 문맥 내에서 해당 구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클라인(Klein), 블롬버그(Blomberg), 허바드(Hubbard)의 성경 해석 교과서에서 내가 알게 된 또 다른 예는 결혼식이나 그와 유사한 곳에서 자주 듣는

텍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 127편과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는 가족이나 아들을 갖는 것, 실제로 많은 아들을 갖는 것에 대한 언급과 여호와와 기업으로 여러 아들을 갖는 미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까지를 보면 아들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자식은 그 상급이니라.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젊어서 태어난 아들이니라.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들과 싸울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구절은 대가족을 갖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완전한 딸림을 갖는 것에 대한 언급.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문에서 적들과 싸울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대사이다.

그 의미는 이 문이 분명히 이곳에서 전쟁을 하는 곳이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마도 사망률이 훨씬 다르거나 심지어 더 높았던 시대에 아마도 대가족이 있으면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대가족을 가지라는 요구가 아니며, 대가족을 갖지 않는 것은 어쩐지 불순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언급된 내용은 주로 아들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문에서 다투었을 자들은 딸들이 아니라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히 오늘날 대가족을 가지라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명령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가족에 대한 요구에 가깝고 법적 문제에 대한 대표입니다. 따라서 적용이 텍스트의 더 넓은 역사적, 문학적 맥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석상의 또 다른 오류나 실수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역사적, 구속적 역사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신학 논의에서 구약성경이 약속과 성취의 하나로서 신약성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본문은 구약에서 일시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성서의 본문을 적용할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음식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일부 본문의 경우 구약성서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며 신약성경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계시.

그러므로 특정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는 구약의 음식법을 단순히 살펴보고 마치 그러한 종류의 음식도 피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약과 구약의 구원역사 구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

내 생각에 적용의 세 번째 실패 또는 오류는 적용하지 않는 다양한 문학 장르, 예를 들어 서간 문학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사문학에서는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고, 점점 더 폭넓은 문학적 맥락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응용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출애굽기 18장과 관련하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부 사건을 위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을 처리하고 다른 일을 다른 개인에게 위임합니다.

내가 한 것이 출애굽기 18장만 읽었다면 책임 위임과 사업 운영 방법에 적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실제로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8장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가 약한 인간으로 묘사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모세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분의 능력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종종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더욱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학 장르를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읽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비유가 불충분하다는 점, 즉 현재 상황과 적용 사이의 비유가 원래 상황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위험입니다. 즉,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하는 본문을 미국과 같은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특히 그 사실을 다시 놓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역사적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 원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조.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어떤 국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서나 국가로서 그들을 계속 축복하시기 위해 이것이야말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면, 특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선호.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백성과 국가적으로 관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과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초국적이며 초문화적이다. 또는 또 다른 예는 노예 제도, 즉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언급하는 신약성경의 본문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적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노사관계와 고대의 주인-노예 관계 사이의 비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해석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단순히 적용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가능한 한 가지 제안은 우리가 매우 일반적인 적용 방법은 성경 본문에서 추상적인 원리를 추출한 다음 그 원리가 현대 상황과 현대 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는 번역의 세 가지 측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고대 언어인 원어와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어서 텍스트의 주요 메시지를 밝히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용 언어로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동적 등가 번역으로 알려진 프로세스를 통해 수용 언어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유해서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적용 과정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를 원래의 맥락에서 연구함으로써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작가가 의도한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문학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 단어의 의미와 문법, 문학 장르에 비추어 작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질문합니다. 텍스트? 이 표현은 1세기 독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기본이 되는 다문화 원칙이 무엇인가입니다.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역사적 상황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즉, 시대를 초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대를 초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셋째, 수용 언어와 번역 과정에 따라 무엇이 적절하고 부적절하며,
 현대의 맥락과 상황에 대해 이 원칙 또는 이러한 원칙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특히 동적인 등가 번역과 관련하여 수용
 언어에서 메시지로 이동한 다음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하는 과정과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자원 언어를 시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의도한 대다수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용 언어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는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공부할 수도 있고, 원래 문맥에서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기꺼이
 먹지 말라고 요구하는 고린도서 부분입니다. 따라서 1세기 고린도에서 고기를
 먹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식사에
 초대했거나 당신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기로 결정했을 때, 그렇게 할 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고기는 어느 시점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지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날 일찍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느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고기일 뿐이고, 나는 이것을 먹는데 어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스테이크를 즐기고 있거나 어찌됐든 이미 상황에 맞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그리스도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들을 기분 상하게 하거나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나오거나 이 본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칙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기독교인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적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시대, 교회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를 무시하고 위반할 위험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고기를 사는 사회에 살지 않으며, 고기는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형태는 아마도 바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본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현대의 비유 중 더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따라서 삼중 방법은 종종 원리화(principalizing) 라고 알려진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즉, 원래 문맥에서 텍스트를 연구함으로써 문맥을 초월하는 의미나 원리를 식별하고, 이제 문맥에 배치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맥락, 원칙 또는 원칙. 대부분은 하나만 있다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많은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이를 기계적 접근 방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레시피와 같은 간단한 3단계 방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유효한 적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창의성과 신중한 사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아마도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려면 적용의 보다 대화적인 성격, 즉 적용의 보다 대화적인 특성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지원 과정의 맨 처음에는 원래 문맥에서 이 본문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 본문에 접근할 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텍스트가 현대 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응용 프로그램이 더 대화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과정의 시작부터 성경 본문을 그 맥락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능한 비유와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해당 텍스트가 오늘날 독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다른 요소, 성경 본문을 적용하는 것, 후속 상황에서 적용할 원리를 추출하는지

여부, 본문의 모든 적용이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그 적용은 책 자체의 더 넓은 맥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텍스트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더 넓은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원칙과 그 적용은 해당 텍스트의 의도, 해당 텍스트의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텍스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법학 문헌이나 법의 장르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을 때 구약성서에서 발견한 법 중 하나가 농부들에게 밭을 가장자리까지 추수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두십시오.

누군가는 이것이 농부들에게만 적용되며 모든 작물을 수확해서는 안 된다는 유효한 적용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의도와 일치하게, 더 넓은 맥락에서, 그리고 이 법의 의도는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나 법의 의도에 따라 이제 나는 그 법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원칙이나 의도가 어떻게 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시, 해당 법칙의 의도와 일치하는 비유를 찾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도출하는 원리와 적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일관되고 더 넓은 맥락에 따라 안내되어야 하며, 또한 텍스트의 의도와 일치하고 이에 따라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나는 다시 해석자로서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간다. 나는 우리가 논의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고, 더 넓은 역사적

맥락, 문학적 맥락, 장르에 비추어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신학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나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문을 이해하면서 나는 본문의 고대 세계와 내가 속한 세계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의 세계와 내가 속한 세계 사이의 중첩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이러한 가능한 일치 사항이 성경 본문과 일치하는지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그것들은 성경 본문의 더 넓은 맥락에 부합합니까? 그 본문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합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본문을 읽음으로써 얻은 질문과 통찰력이 성경 본문 자체에 의해 도전받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나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는 본문의 메시지를 듣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된 적용이 문맥에 맞는지, 텍스트의 목적이나 의도에 맞는지 다시 테스트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지 엄격한 3단계를 따르고, 원래의 맥락에서 텍스트를 연구하고, 원리를 추출한 다음, 적용 방법을 찾는 것보다 좀 더 대화형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방법을 취하고 그것을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나는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대응을 인식하고 탐색하기 시작하지만 텍스트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합니다. 더 넓은 맥락, 본문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서신과 적용을 테스트합니다. 적용할 때 종종 놓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독자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스트에 순종하고 텍스트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할 때까지 텍스트의 적용을 찾아내거나 생각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석 과정은 텍스트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반응과 일치하는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까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적용과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몇 가지 추가 특징은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의 해석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학문과 해석의 궁극적인 맥락은 대학이나 신학교가 아니며, 우리의 학식 있는 성서 협회도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중요한 점검을 제공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해석은 교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내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내 삶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 이상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맥락에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해석과 적용은 교회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 공동체가 초문화적이고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내가 처해 있는 제한된 역사적 문화적 상황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볼 수 있도록 도우며, 내가 성경 본문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돕기 위해 본문을 해석하고 읽고 스스로 적용한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대개 내 유학생이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합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북미 지역, 즉 미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성경 본문에 대한 나 자신의 해석과 적용에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종종 외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내가 북미, 서양, 중산층, 백인의 관점에서 본문에 접근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거나 반드시 텍스트를 흐리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도 텍스트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가난과 억압의 상황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텍스트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성경 본문의 상황과 더 가깝고 더 유사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난과 압제와 박해에 관한 환상을 읽곤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나에게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곤 했지만, 언젠가 나중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겪었던 다소 비천하고 이따금씩 사소한 조롱과 불편함을 겪는 일에도 이 말을 자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고통과 죽음, 또는 특히 외국 억압자들의 손에 의해 고통과 억압과 죽음이 현실이 되는 문화권에서 온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빛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나는 이 책을 나 자신의 가끔, 사소하고 사소한 불편함을 언급하기 위해 읽은 것이 아니라, 대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즉,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억압에 기여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불의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맥락 내에서 우리의 적용과 해석을 수행하는 적용에 대해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문화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교회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나라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들어야 합니다. 해석과 적용에 있어 내 자신의 맹점을 간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용은 추가 기능이나 해석 과정의 마지막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해석 과정의 맨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성경 본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곳.

나는 그것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작가가 의도한 바에 비추어 보면. 그러나 나는 내 시대와 관련된 가능한 영역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원래의 역사적 상황을 뛰어넘어 나 자신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원래의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 맞는지 여부를 통해 테스트해야 합니다. 본문과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문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단락되어 단락됩니다. 단지 응용 분야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 본문에 복종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성경 자체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아직 해석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함께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적 접근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특히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론과 비판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해석적 접근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다음 해당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 본문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